

혼돈 속에서 새 희망 찾기

- 참회와 희생의 리더십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같이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찬 현상은 아마 인류 역사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기 힘들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비(GDP 대비), 공교육비를 쓰면서도 조기해외유학과 '기러기 아빠'를 배출하는 교육의 공동화(空洞化)가 가속되고,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쓰면서도 어른과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 인격파탄의 학생 비율이 세계 최고인 나라(UNICEF, 중앙일보 조사)가 되었다. 유난히도 '명문' (대학)을 강조하면서도 인간교육, 고등교육의 명문 아닌 고등고시 합격률로 명문을 가리고, 자연대, 공대, 사회과학대, 인문대가 될 것 없이 고시에 몰리는 파탄의 대학. 미국보다 독일보다 일본보다 높은 비율의 이공대 학·석·박사 학위를 배출하면서(절대 수로도 4800만 인구의 한국이 9000만 가까운 독일보다 더 많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울부짖는 자가당착. 학생들의 대학총장실 점거가 너무 잦아 뉴스거리가 안되는 나라. 대학총장 취임사가 시대의 정신과 학풍을 리드할 혼과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돈 냄새와 레토릭으로 가득찬 부끄러움. 자기 나라의 정당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사들이 공공연히 주적(主敵)을 찬양해도 사법의 잣대가 침묵하는 나라. 가정파괴, 사회해체, 국가해체가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제 교육의 혼돈과 분열과 극단은 최고 정점, 비등점에 이르렀는가. 그리하여 이제는 자생적으로 새 전환, 새 청산, 새 정리, 새 싹, 새 패러다임이 전개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있는가.

서울대 황우석 교수나 최재천 교수의 능력과 인격과 지향, 전인교육과 생명교육을 지향하는 몇몇 대안학교, 종교학교들의 새 실험에서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꼭 이런 인격, 이런 창의, 이런 노력의 실천이 교육현장의 보편적인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오늘의 혼돈과 모순을 만든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책임자들, 그것이 총리든 장관이든 총장이든 재단이사장이든 학교장이든 그 상징적·실질적 책임자들의 책

입있는 참회와 반성이 피교육자들에게, 일반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참회와 반성에서 우리나라의 시책들이(꼭 짝 짝 놀랄 아이디어, 새 제도이어야만 할 필요도 없다) 피교육자들과 국민들로부터 믿을 수 있겠다고 평가되고 수용되면, 모순과 혼돈으로부터의 탈출의 새 출발이 가능하다.

교육계는 특별히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 사법부, 국방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와 1990년 이전의 과학기술부는 한결같이 순혈주의(純血主義)로 이어온 부서이다. 교육인적자원부만 해도 건국 56년에 지금 교육부총리가 40 몇 대(代)쯤 되었을 터인데, 비교육자 출신은 단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한결같이 대학교수, 총장 출신이었다. 더구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무총리 중 가장 많은 숫자는 교수 출신과 군인 출신이었다.

나는 전두환정권 이후 오늘 노무현정권까지 계속되는 교육개혁위원회는 문을 닫으라고 권하고 싶다. 누가 누구에게 교육개혁하라고 떠들고 있는 것인가. 교육계 출신 장관, 교수 출신 총리가 가득한 정부에서도 실천 못하는 교육개혁을 누구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하며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는가.

돈이 없어 개혁을 못하는가. 인재가 모자라 개혁을 못하는가. 새 제도의 아이디어가 없어 개혁을 못하는가. 교육 '경영' 군주(君主), 무책임하게 감투 즐기는 책임자들, 교육 '선비'로 위장한 교수·교사 이기주의, 교육 '개혁'을 독점 독선하는 소위 진보집단, 이들 기득권으로부터 해방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직 도덕력으로 참회하고 맑게 실천할 뿐이다. 혼과 생명을 걸고 정직하게 실천

할 수 있는, 즉 국민들에게 피교육자들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덕적 리더십, 진지한 리더십을 찾는 일만 남았다.

재주, 편법, 아이디어, 학벌, 인맥, 역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할 일, 지방정부가 할 일, 각 단위 교육의 주체가 할 일, 학생이 할 일, 학부모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지어 주고, 정부와 어른이 매를 들어야 할 때 주저 없이 들고, 각 주체의 이기주의와 방종을 엄격히 다루고, '능력범위' 안에서

국가가 할 일, 지방정부가 할 일, 각 단위 교육의 주체가 할 일, 학생이 할 일, 학부모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지어 주고, 정부와 어른이 매를 들어야 할 때 주저 없이 들고, 각 주체의 이기주의와 방종을 엄격히 다루고, '능력범위' 안에서 자상함과 격려를 지속하는 일, 그것을 일관되게 실행하다 희생이 필요하면 기꺼이 희생하는 리더십, 그것만이 희망을 만든다.

자상함과 격려를 지속하는 일, 그것을 일관되게 실행하다 희생이 필요하면 기꺼이 희생하는 리더십, 그것만이 희망을 만든다. 김진현

김진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Nieman Fellow 과정을 수료했으며, 고려대학교 명예 경제학박사, 광운대학교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부원장·대표이사, 동아일보 논설주간·상무, 과학기술처장관, 한국경제신문 회장, 세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문화일보 사장·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수석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경제학의 제문제』,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은 어떻게 가야하는가』, 『한국-삶의 조건과 미래』, 『해양 21세기』 외 다수가 있다.